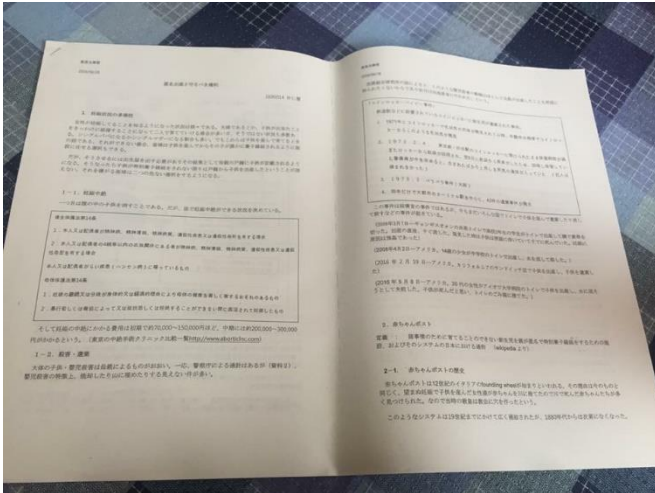


일본에서의 1 년

박 인혜(한국 경북대학교)

저는 2016 년 4 월부터, 오차노미즈여자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왔습니다. 1 년에 미치지 못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일본에서 배우고 느낀 것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보통, 일본으로 오는 교환유학생은 일본이나 일본어를 전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경제나 경영, 예술 같은 일본과의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꽤나 이질적인, 행정학이라고 하는 일본과 관계가 거의 없는 분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에 오기 전까지 [정말 내가 와도 될까.], [시간 낭비는 아닐까?]라고도 생각했습니다. 특히 행정학은 오차노미즈여자대학에는 없는 전공이기도 하고, 경북대학교 측에서 한국의 행정학을 배워야 하므로 일본에서 유사한 과목을 수강해도 전공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는 졸업에 필요한 전공의 단위가 꽤나 부족한 상태여서 앞으로 매우 버거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와서 정말 좋았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저 책으로 읽는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셀 수 없을 만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차대에서 수강한 수업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마르셀로교수님의

[가족법세미나]입니다.

세미나형식의 수업은 처음이고

한국에는 없는 수업방식이라 수강하여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무척 작은 문자가 들어찬 판결문을 받았던 때는 내가 이걸 과연 읽을 수 있을지가 매우 걱정이였습니다. 하지만 1년간 수업을 듣는 동안 판결문 정도는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세미나의 사람들과 의론한 것은 매우 공부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자신의 생각이 바뀌거나,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도 했습니다. 전기에는 베이비박스에 대해서, 후기에는 면접교섭권의 확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30분의 매우 긴 시간동안 발표하는 것은 한국어로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고생도 했습니다만 그 덕에 일본어실력이 는 기분이 듭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장을 읽고 의론하고 발표를 준비한 이 수업은 제 일본어실력의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세미나의 사람들과 식사회를 하거나, 3학년들끼리 술을 마시러 가기도 하며 세미나의 사람들과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1 년간, 저는 다양한 일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봄에서 겨울까지의 색의 변화를 느끼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봄의 벚꽃, 여름의 불꽃놀이, 가을의 단풍의 색채에 둘러싸여 매우 행복했습니다. 특히



여름에 tea 분들과 간 하코네는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하코네의 여름의 색채를 즐기며 불꽃놀이를 보고, 온천료칸에 묶으며 사랑이야기도 했습니다. tea 분들은 하코네이외에도 다양한 여행이나 요리회를 열어주어 매우 많은 추억을 주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친해진 tea 분들과는 귀국후도 계속 사이좋게 지내고 싶습니다.

가을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닛코에 간 것입니다. 가을을 즐기며 관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때 묵었던 숙소의 주인분들이 무척 친절하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은 도쿄의 여기저기의 일루미네이션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일본에서의 겨울은 돌아갈 때까지 추억으로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여러가지로 후회도 남아 있습니다. 고민하는 사이에 노쳐버린 기간한정의 과자, 돈걱정으로 포기한 여행, 아르바이트의 동료들과 좀 더 일찍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지 못했던 것이나 이런 수업을 들었으면 좋았을텐데 등의 시작하면 끝이 없을 만큼 후회로 가득 찬 1 년입니다. 하지만 그 후회는 또한 1 년간의 생활을 즐겁게 생각했기 때문에 있는 후회로, 1 년을 충실하게 보낸 증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즐거웠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들에 대한 후회가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단언 할 수 있는 것은 일본에 온 것에 대한 후회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와의 만남, 오챠대와의 만남, 사람과의 만남에 무척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 년동안 저를 걱정하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오챠대에 무척 감사드립니다. 일본에서 1 년간을 오챠대에서 모두와 보낼 수 있어서 무척 행복했습니다.